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륙전투의 승리는 적해안방어시설물들을 단숨에

극복하는것과 함께 아군의 상륙을 불허하려는 적들의 반작용을 어떻게 제압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작전전투방안들을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것을 숙련하기 위한 실용적훈련을 강화하며 해군수상함선들의 무장장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해안으로 달려드는 적상륙집단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리자면 당에서 새롭게

제시한 주제적인 해안방어에 관한 전법사상의 요구대로 부대, 구분대들을 부단히 훈련 또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전 군인들은 지나거나 오직 적들과 싸울 생각, 농들을 단애에 요정내고야말 결심으로 가슴 불래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여 군인들을 뽕뽕 나는 일당백싸움군들로, 백두산호랑이들로

철저히 준비시키고 모든 부대들을 강철의 근위부대로 강화함으로써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적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밟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훈련지도도를 받은 인민군장병들은 불계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울 실장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만단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으로써 서울해방작전, 남반부해방

작전에서 빛나는 군공을 세울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이 땅에서 일단 싸움이 벌어진다면 우리 혁명무력의 보부성전은 미세와 박근혜피의역적배당이 감행한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때까지 순간도 멈춤없이 강도높게 벌여질 것이며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총대는 박근혜《정권》에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기고야말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